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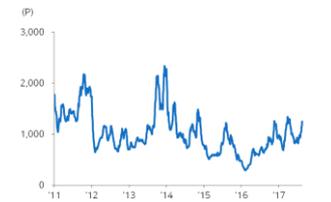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8,839.8	17.4	156,000	-3.4	-7.4	-6.3	12.7	56.2	127.0	0.8	0.8	1.3	0.6
현대모비스	7,149.8	19.1	439,000	-2.4	9.9	25.4	NA	4.8	5.5	0.9	0.8	19.4	15.8
현대일렉트릭	1,122.3	7.6	302,500	-0.2	-1.1	6.3	NA	14.8	10.0	1.4	1.2	9.5	13.1
현대건설기계	1,299.2	10.2	362,500	-2.8	-0.5	25.9	NA	11.3	8.6	1.5	1.3	13.1	15.8
삼성중공업	4,036.5	19.4	10,350	-1.9	-10.0	-8.8	11.9	52.5	112.0	0.6	0.6	1.2	0.6
대우조선해양	N/A	2.9	N/A	NA	NA	NA	NA	NA	NA	NA	NA	17.6	9.1
현대미포조선	1,966.0	13.0	98,300	-3.6	-7.7	3.8	46.3	9.7	33.3	0.8	0.8	8.9	2.4
한진중공업	4,762.4	4.4	4,490	2.0	5.0	19.1	33.4	-14.0	10.1	0.5	0.5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273.5	28.7	51,700	-0.2	-11.5	-16.6	-9.9	9.6	9.1	1.4	1.3	15.9	14.6
두산발켓	3,639.0	24.5	36,300	-2.2	4.5	-1.6	1.3	15.9	14.6	1.0	1.0	6.6	6.7
현대로템	1,534.3	28.2	18,050	-0.6	-6.5	-16.0	-0.6	34.2	23.1	1.1	1.0	3.2	4.6
하이록코리아	299.5	46.6	22,000	-0.5	-8.3	-9.1	4.3	11.5	10.2	0.9	0.9	8.5	9.0
성광벤드	268.8	13.6	9,400	-1.1	-4.3	-10.9	6.1	30.4	17.5	0.6	0.6	1.9	3.2
태광	251.2	17.0	9,480	0.5	-0.4	2.4	14.4	35.5	19.6	0.6	0.6	1.6	2.9
두산중공업	1,921.6	10.7	18,050	-3.0	-12.8	-23.0	-33.6	18.6	9.9	0.6	0.6	3.9	6.2
두산인프라코어	1,665.9	13.4	8,030	-3.1	-2.2	-12.2	-9.0	9.6	7.7	0.8	0.8	8.5	10.2
두산엔진	277.0	5.2	3,985	-1.1	-2.6	4.5	21.3	21.4	24.5	0.5	0.5	2.4	2.0
한국항공우주산업	4,152.4	19.8	42,600	-0.6	-11.2	-30.2	-36.4	23.8	15.9	2.7	2.4	11.5	16.1
한화테크윈	2,148.7	21.3	40,850	4.6	5.6	-15.8	-6.0	20.5	15.5	0.9	0.9	4.4	5.6
LG에너지솔루션	1,735.8	20.6	78,900	-0.6	17.4	-0.8	-2.0	17.7	17.1	2.4	2.2	15.2	13.6
태웅	409.2	4.6	20,450	-1.2	-15.0	-28.0	-8.9	NA	NA	NA	NA	NA	NA
동성하이텍	142.2	3.0	5,270	-2.0	-12.5	-21.3	-8.3	-24.5	10.5	1.3	1.2	-5.1	12.0
한국가분	266.0	16.6	6,050	0.3	-0.3	-8.7	0.0	23.7	22.5	0.8	0.8	3.5	3.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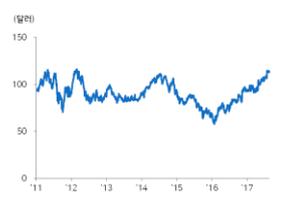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13** 1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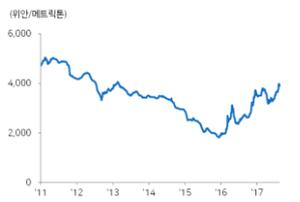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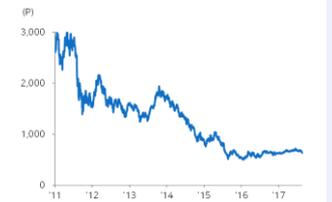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0.78** 113.92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S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치수 123p(-1p WoW), 중고선가치수 87p 기록

Clarksons 신조선가치수는 123p(-1p WoW), 중고선가치수는 87p를 기록함. 대만의 CSBC는 China Steel Express로부터 두 척의 벌크선을 수주함. 각 선박은 20.8만DWT, Newcastlemaxes급으로 알려짐. 대진조선은 1,011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SIW에서 수주함. (Clarksons)

Product portfolio is key to CSBC future

대만의 CSBC는 어려운 업황에도 선박 건조능력을 줄이지 않고, 내년 8천만달러를 투자해 두 대 이상의 골리앗 크레인용 설치할 예정임. 이는 노후화된 기존 크레인을 교체하는 목적임. 회사 관계자는 아직 조선업의 회복을 이르고, 더 이상 중조선박이 팔리지 않을 때 조선업의 회복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TradeWinds)

BP casts wide net as Tortue floater race commences

오일메이저 BP는 세네갈과 모리타니에 있는 58억달러 규모의 Tortue gas 프로젝트에 필요한 FPSO의 발주를 준비함. BP는 지난 달 8개 계약자에게 제안요청서(REP)를 보냈으며, 그 중 국내 기업으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포함됨. 올해 10월, BP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짐. (Upstream)

VLCC rush continues as Japan unveils fresh orders

일본 조선소는 지난 달 3척의 VLCC를 수주함. 이번 주문은 일본 선박 수출 협회(JSEA)의 월별 신규 계약자 수에서 발표됐으며, 주문과 관련된 야드와 소유자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국 내 소유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TradeWinds)

South Korea aims to be regional oil trading hub

한국은 기존에 정유 회사들에 한해서만 허가했던 블렌딩 활동 규제를 철폐하고, 석유 회사들이 석유 터미널의 보세구역에서 연료를 블렌딩할 수 있도록 허가함. 향후 수출 대상은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며, 아시아 시장에서의 선두주자인 싱가포르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됨. (TradeWinds)

Uptick for rig demand

Clarksons Platou Offshore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Floating Rig와 Jack-up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Floating Rig의 현재 가동률은 63%로 2016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Jack-up의 가동률은 67%에 달함. 추가로 삼성중공업이 Jack-up Askepott를 지난 달 인도했다고 전함. (Upstream)

Block B award attracts quartet

Petro Vietnam의 Block B 천연가스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계약 입찰에 미국의 McDermott, 싱가포르의 SOME,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초대받음. 해당 업체들은 2만톤 규모의 Topside에 입찰할 예정이고, 이번 분기 말 입찰 제안서가 제출될 계획임. (Upstream)

대우조선, '한정' 사유 해소...경영정상화관리위 "자구계획 이행 독려"

삼일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016년 결산 당시 받았던 '한정' 의견 부여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적정' 검토의견을 제시함. 대우조선해양은 1) 내부 구조조정을 통한 원가절감 2) 해양플랜트 건조 관련 양호한 선주사 비용보전 협상결과 3) 채권단 출자전환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개선됨. (EBN)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8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8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조사사실 담당자는 2017년 8월 21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사: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